

워킹타워 2개 설치 진입로 확보... 19일부터 본격 수색

세월호 3주기...향후 수색 일정과 전망

세척·방역 완료...유해가스·붕괴 위험성 등 최종 점검 이동 돕는 난간 설치작업 돌입...운동화 1점 추가 발견

세월호 참사 3주기인 16일 목포신항 철재부두에서는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최종 점검이 진행됐다. 선체 수색팀의 이동로인 워킹타워가 설치됐고, 오른쪽 안전난간 설치도 순조롭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후 "세월호 선체 내부 수색을 위한 워킹타워 2대 설치가 마쳤다"고 밝혔다.

워킹타워는 수색자들이 붙잡거나 디딜 수 있도록 돕는 높이 26m 계단형 구조물이다. 계단형으로 돼 있어 작업자들이 사다리차 등에 의지하지 않고도 수시로 세월호 상부를 드나들 수 있게 하는 핵심 장비다. 철제빔을 세운 뒤 지그재그 모양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작업자들이 디딜 수 있는 발판, 추락 방지용 난간 등을 갖췄다.

현재 원편으로 누운 세월호는 수직 높이만 22m로, 아파트 9층 높이에 달하고 내부가 어지러워 이동을 위해서는 워킹타워가 필수적이다.

우현 측에는 작업자의 이동을 돕는 난간이 새로 만들어진다. 1주일 정도 작업이 완료되면 선체 내·외부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 선체 외부 세척과 내부 방역을 완료한 해수부, 선체 정리업체 코리아씨비지는 선내 수색을 앞두고 세월호 인편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해수부는 미수습자 가족 등과 조율을 거쳐 18일 수색계획을 발표하고 19일 본격 수색에 착수할 방침이다. 계획 발표 전이라도 좌현 부분에 구멍을 3개 뚫어 장애물을 제거하고 진입로 수색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선체 외에도 안전도 검사도 진행 중이다. 수색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선체 안 유해가스 존재 여부나 붕괴 위험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다.

작업자들은 산소농도 측정기와 혼합가스탐지기(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가연성 가스(메탄 등)를 측정한다. 나하

물이나 붕괴 위험한 구조물이 있는지도 육안으로 살펴보고 직접 구조물을 더듬어보며 상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날 선체에서는 운동화 1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워킹타워 설치 중 세월호 하부 리프트 빔 부근에서 이른 신발로 추정된다. 전날 우연 3층 선미에서 동물의 것으로 보이는 뱀조각 17점이 추가로 나오는데 지금까지 뱀조각 37점, 유류품 108점 등 지금까지 뱀조각 37점, 유류품 108점 등 구역 중 1-1부터 6-1까지 6개 구역이 완료됐다. 하지만 이 곳에서는 유류품이 나오지 않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안전대책 쏟아졌지만 해양 사고 73% 급증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백약 처방이 나왔지만 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사고는 2307건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과 비교하면 약 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192건, 하루 평균 6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원인별로는 기관손상(755건)이 가장 많았고 충돌(209건), 추진기 손상(138건), 좌초(137건) 순으로 뒤이었다. 세월호 참사로 2014년 역대 최대인 40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2015년 76명, 2016년 73명이 해양사고로 숨졌다.

실종자는 2015년 24명·2016년 45명, 부상자는 2015년 295명·2016년 293명을 기록했다. 선박 종류별로 보면 여선 사고가 지난해 179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수의 승객이 탑승으로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여객선 사고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매해 65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집회가 지난 15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렸다.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퍼포먼스팀이 음악에 맞춰 플래시몹을 펼치고 있다.

금남로 5000여명 참석...미수습자 수습·진상규명 촉구

광주 마지막 촛불집회

세월호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광주에서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미수습자 조기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마지막 촛불집회가 열렸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이하 광주본부)’는 이날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3년! 부역자 처벌! 적폐청산 촉구! 21차 광주시국 촛불집회’에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세월호

를 잊지 않으려는 50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세월호의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사드배치 철회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 요구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시작한 이날 집회에서는 ‘은전한 미수습자 수습’, ‘사드배치 철회’ 등에 대한 발언이 잇따랐다. 주재발언에 나선 단원고 희생자 2학년 8반 우재군의 아버지 고영환(50)씨는 “3번의 봄이 찾아왔지만 지금도 3년 전 4월

16일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진실이 밝혀지는 그 날까지 활동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제 앞서 이날 오후 3시경에는 세월호를 기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광주 청소년촛불모임’이 촛불집회가 열리기 전 금남로에서 청소년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기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린 청소년촛불문화제에선 세월호

희생자 304명에게 편지 보내기와 청소년 버스킹, 세월호 및 사드 관련 영상 상영 등이 진행됐다. 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를 주제로 한 플래시몹과 노란리본 만들기 등 세월호 추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다.

촛불문화제 플래시몹에 참여한 양예지(여·18)학생은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했다”며 “준비가 늦어 연습을 3일밖에 못했지만 희생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 9개 시·군에서도 이날 세월호 3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국가인권위, 입법조치 요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안전단원과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조치를 통해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하라는 의견 표명을 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인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안 검토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기간제 교사는 법원 판례·국회 해설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비공무원보다 공무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전은재기자 ei6621@

“진실은 밝혀지고, 그들은 사랑 가득한 집으로 돌아올 것”

선 험번 추모 메시지 보내

‘세월호 기억의 숲’ 산파 역할

“진실은 밝혀지고, 그들은 사랑으로 가득한 집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영화배우 오드리 험번의 아들인 선 험번(사진)이 ‘세월호 3주기’를 맞아 15일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 선 험번은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진도에 조성한 ‘세월호 기억의 숲’ 산파 역할을 했다.

선 험번의 추모 메시지는 이날 팽목항 인근 ‘세월호 기억의 숲’에서 열린 ‘세월호 기억의 탑’ 제막식에서 공개됐다. 선 험번은

“그 무엇보다 당신의 상실을 채울 수 없지만 ‘삶이 계속되리라’는 의미로 기억의 숲에 나무를 심었고, 이 나무는 거센 태풍 속에서도 꾸준히 자랄 것”이라며 “늦었지만 세월호가 인양됐고 이제 어둠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들은 기억되어야 하고,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항상 당신 곁에 있다”고 덧붙였다.

선은 오드리 험번이 배우 멜 페라와 결

혼해 낳은 첫 번째 아들로, 험번이 세상을 떠난 1993년 이후부터 오드리 험번 어린 이재단 등 어머니와 관련된 재단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진도 세월호 기억의 숲은 선 험번의 재산을 받아 사회적 기업 트리플레닛이 지난해 4월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이곳에 304인의 희생자를 상징하는 은행나무 304그루를 심었다. 304명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가족과 친구 등이 작성한 메시지가 새겨진 ‘세월호 기억의 벽’ 조형물 등이 설치됐다.

김형호기자 khh@

20억원대 도박장 개설 목표 폭력조직 3명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장을 차려놓고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목포 지역 폭력조직 5과 행동대원 최모(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 곳에서 20억원대 상습 도박을 한 유홍업소 업주 김모(36)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목포시 하당 일대의 빈 사무실과 모텔 등지에 도박장을 개설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일명 ‘바둑이’ 카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회 약 1억원 상당(총 판돈 20억원)의 도박판을 벌였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 등은 유홍업소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도박에 참여시켰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승자에게 10%를 떼가는 방법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중 4명이 도박 전과가 있는 점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최씨 등이 수익금을 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우리 해역에 침입해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16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8분께 신안군 흑산면 흥도 서쪽 101.8km 해상(어업 협정선의 즉 0.9km)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어선 단타 망어선인 노영어호 1척을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나포된 노영어호는 지난 5일 중국 산둥성 석도항에서 출항해 한·중 어업협정선의 즉에서 조업을 하다 지난 11일 낮 12시47분께 조업허가증 없이 어업협정선 0.5km를 침입해 조업을 한 혐의다. 조업 허가를 받지 못한 노영어호는 지난 14일에도 어업협정선 2km를 침입해 조업을 하던 중 해경이 접근하자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해 그물을 끊고 2.9km 가량 도주했으나 추격전 끝에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음주 난동 50대 경찰서에서도 행패

○~50대 남성이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된 것도 모자라 경찰서 화장실에서 좌변기를 손으로 뜯어 내며 행패까지 부리는 바람에 구속될 처지.

○~1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1)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57분께 술에 취한 채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상가에 서 최모(여·61)씨가 운영하는 상점 앞에서 최모씨를 손으로 뜯어 내며 행패를 부리는 등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는데, 동부경찰서로 연행되어서 최모씨에게 욕설을 하고 피의자 대기실 화장실 좌변기를 손으로 뜯어내 바닥에 던지는 등 기물까지 파손한 혐의.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전에도 업무 방해로 실형을 산 경력이 있다”며 “현재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인해 누범기간에 있는 만큼 면벌하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6타경 52310	1	목포시 백련대로375번길20, 202동 1층 1021호 [복합용, 하양금호아파트] 84.99㎡	아파트	126,000,000 126,000,000	
2016타경 9071	1	함평군 순물면 통암리 514 992㎡ [현황주거나지]	대	14,284,800 14,284,800	수목매각 제외
2016타경 9149	1	신안군 지도읍 차동리 476 1567㎡	전	26,840,000 26,840,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9494	1	신안군 도초면 고리리 912 1546㎡ [현황목조주택]	전	11,285,800 11,285,800	분양소제,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9514	1	무안군 무안읍 신학리 311 2681㎡ [답일밭]	답	58,982,000 58,98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9521	2	영암군 혁신면 은곡리 250-1 1501㎡ [현황전일밭]	전	42,028,000 42,028,000	분양소제,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9521	2	무안군 삼향읍 황산리 1166-20 600㎡	임야	47,400,000 47,400,000	일부점도구역지적
2016타경 9569	1	신안군 압해읍 복흥리 167 3305㎡	전	105,760,000 105,76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9613	1	영암군 시종면 옥마리 684-1 185㎡	전	14,121,400 14,121,4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9811	1	영암군 영암읍 송별리 876-1 694㎡	전	32,661,000 32,661,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영암군 876-2 1025㎡ [물건번호1:수목채외]	전	32,661,000 32,661,000	특지취득명요
	2	영암군 956-12 3840㎡	답	32,120,000 32,120,000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	영암군 964-9 2000㎡ [물건번호2:농지취득자격증명요, 남현동지분1/2전부]	답	32,120,000 32,120,000	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6타경 9996	1	신안군 압태면 기동리 452-6 110㎡ [현황목조, 일부도시계획시설도로, 도로구역도법지적]	답	2,195,700 2,195,700	일괄매각, 목책3제시외건물채외,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6타경 9996	1	동소 594 301㎡ [현황목조]	전	6,718,000 6,718,000	토지인의매각, 수목목표
	2	동소 663-1 740㎡ [제시외건물채외]	대	6,718,000 6,718,000	
2016타경 10064	1	함평군 다산면 용두리 967-1 450㎡ [현황답]	전	8,100,000 8,1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10132	1	목포시 흥남동 329 231㎡ [토지인의매각, 제시외건물채외]	대	101,640,000 101,640,000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
2016타경 10194	1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산84 12298㎡ [일부도로, 조남축지분9958/12298전부, 지분매각]	임야	12,945,400 12,945,4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2016타경 10255	1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 367 2152㎡	전	57,544,400 57,544,400	일괄매각, 목책1잔디채외, 목책1.2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10316	1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1084 1997㎡	전	63,904,000 63,90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52259	1	영암군 삼호읍 남전리 646-6 433㎡ [현황나지]	대	103,838,000 103,838,000	일괄매각, 수목채외
2016타경 52389	1	목포시 646-7 1546㎡ [현황임야, 전,구거]	임야	13,237,300 13,237,300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박승삼지분124/254전부
2016타경 52433	1	함평군 다산면 이문리 989-11 8.7㎡	전	6,576,640 6,576,640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동소 989-2 1087.9㎡ [물건번호1:농지취득자격증명요, 경전역지분1/3전부]	답	6,576,640 6,576,640	
2016타경 52570	1	사동면거지: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82번길 31, 105동 1602호 [근화배아재]	지동차	13,500,000 13,500,000	분양소제:무안군보로점장리5351대0747 차량:K3 연식:2015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목책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요를 제출한 후, 최고(대)소수권이 매각대상지(가)를 농지취득자격증명요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하며, 이는 매각대상지(가)의 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법 변경으로 인한 면적변경이 발생한 경우 대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2017. 4.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김원태